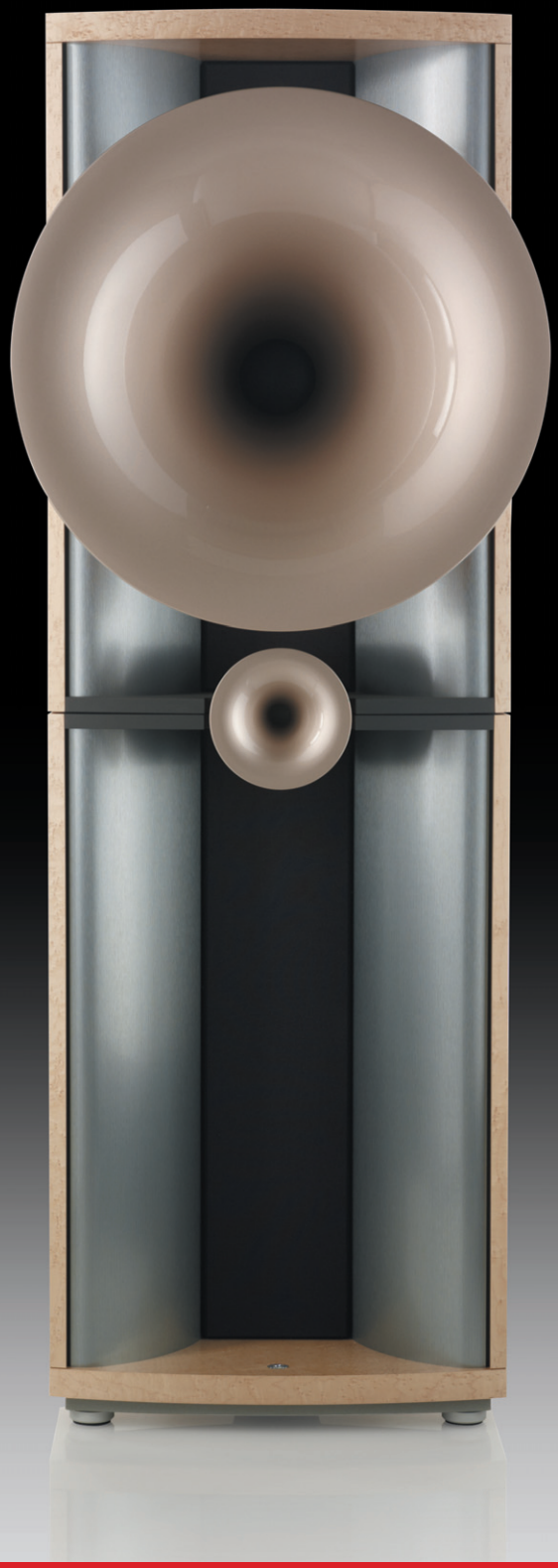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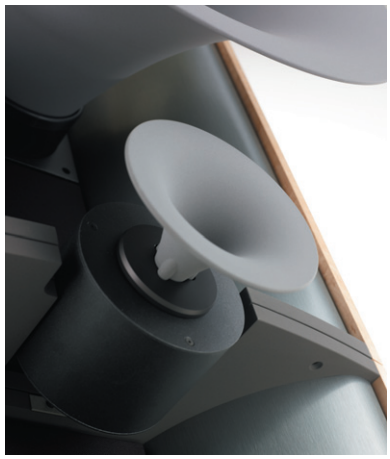
Avantgarde Acoustic Duo Primo G2

수입원 태인기기 (02)971-8241
가격 1억1,500만원 **주파수 응답** 170Hz-20kHz(새틀라이트), 18Hz-350Hz(서브우퍼) **출력음압레벨** 107dB 이상 **크로스오버 주파수** 170Hz, 2000Hz
권장 앰프 출력 10W **실효 출력** 250W **토로이달 트랜스포머** 540VA×2 **크기(WHD)** 67×180×65cm **무게** 177kg

혼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뛰어난 작품

_글 김남

독일에서 이런 우아한 혼 스피커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분은 다른 스피커를 사려고 작정한 후 숍에 나왔다가 아방가르드의 제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져서 출혈을 무릅쓰고 구입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혼 스피커가 우수하기는 하지만 사실 좀 멋대가리가 없다. 그런데 아방가르드의 스피커를 본다면 '이 디자이너는 천재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처음에는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워 수제품처럼 소량 생산만을 해온 탓으로 줄을 서 봐야 소용이 없었지만, 이젠 본격적인 시설 개선과 공장 확장으로 물량 공급이 원활해졌다. 처음의 오리지널이 등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컬러의 다양화, 그리고 인클로저도 우아하게 개선이 되었는데, 그 새 버전이 나와서 하루 시청을 하고 돌아온 날 밤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을 정도로 마음이 산란했다. 호텔 캘리포니아를 소출력의 인티앰프로 울렸는데도 그 삭막한 먼지바람이 눈앞을 휩쓸어 가는 듯한 실체감과 광막함에 압도당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물론 본 제품을 여기에 추천한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 아래 솔로부터 시작하는 하위 기종도 똑같은 감동과 충격을 맛보기에 충분하다. 다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걸리기는 하지만 아방가르드의 제품들은 오디오가 아니라 하나의 미술 조각품들이다. A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완벽함의 미학

_글 이종학(Johnny Lee)

지난 번 뮌헨 오디오 쇼에서 여러 애호가들을 만나 함께 다닌 적이 있다. 숱한 부스를 다니다가 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아방가르드의 부스. 디테일, 해상력 등에다 완벽한 밸런스에 모두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동사에서 나온 앰프의 라인업이 정리되면서 한층 더 음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 아방가르드 제품의 핵심은 역시 미드레인지를 담당하는 혼의 크기. 클수록 당연히 담당 주파수 대역이 넓어진다. 7인치 M2 드라이버로 커버하는 부분이 무려 170Hz-2kHz 사이. 대부분의 음성 신호가 혼에서 나온다. 거기에 100W 파워가 달린 서브우퍼는 무려 18Hz까지 내려가니, 달리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본기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다. 일체 필터나 크로스오버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역을 나눠 어떤 신호가 들어와도 일체의 손실이 없게 한 점이다. 당연히 디테일, 해상력, 다이내믹스 등에서 그야말로 싱싱한 음을 재현한다. 하지만 사이즈를 보면 너무 작지도 않고 또 크지도 않아 우리 주거 환경에 상당히 부합된다. 현대적인 센스 만점인 디자인에 대해선 두말하면 잔소리. A